

[아티스트 노트]

허만 콜겐

COVID-19에 의해 발생한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전세계적 팬데믹은 인류 전체를 제3의 시각으로 접근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러한 점은 제 작품 'LifeFORM'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융합예술 아티스트로서, 예술과 기술 사이 다채로운 융합을 통해 지구상의 수많은 종 중 하나로 인류가 차지하고 있는 '초라한 위치'를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제 작업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를 허물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물질인 제 존재를 디지털 페르소나의 형태로만 작품 속에 드러냈습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COVID-19 바이러스는 예술적 표현으로 묘사되었죠. 이는 Audiocinematic art의 투과막을 통한 독특한 미학을 표현하는 저만의 교차 표현 방식입니다.

제 작품 내 바이러스 모양의 헬멧을 쓴 무표정한 남자는 인간의 지속 가능성에 반드시 필요한 변성 혁신을 보여줍니다. 세계화의 초석에 있는 현 문명사회는 지금 COVID-19의 출현과 함께 엄청난 격변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우리 역사 전반에 걸쳐 일어난 수많은 패러다임 전환 사건으로 선행된 일종의 '오래된 미래'입니다. 이는 여전히 겪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와 바이러스 모두가 가지고 있는 탈바꿈의 기풍을 포착하여 작품의 핵심 서사로 풀어냈습니다.

서사 측면에서, 제 작업은 주제에 대한 스토리 라인을 급격히 확장합니다. 현 대유행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발생한 거의 모든 시대를 정의하는 사건은 엄청나게 작은 시작에서 비롯되어 대재앙으로 바뀌고 결국 인간 진보 과정의 기반이 되는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끝으로 <Apperceptional Glimpse : Traumatized Conventions>는 유튜브 플랫폼에 공개됨으로써 제 작품과의 맥락적 연관성을 보일 예정입니다. 제 작품과 다른 작가들의 작업이 물리적 접근 없이 같은 공간과 시간에 연결되는 점을 통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우리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작품을 통해 우리 자신을 총체적 인식 방법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